

노회찬 장례 이틀째...정치권·시민들 '조문행렬' 이어져

유승민 "마지막 가시는 길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추미애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안타까운 심정"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장례 이틀째인 24일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정치권 인사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9시께 빈소를 찾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조문을 마친 뒤 "마지막 가시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다"며 "저 세상에서 부디 편안하게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애도를 표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같은 상임위원회를 하지 않았지만, 늘 좋은 관계였다"며 고인과의 인연을 전했다.

오전 11시께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임종성·김민석·김병관 의원 등 당 지도부가 빈소를 찾았다. 침통한 표정의 추대표는 조문을 마치고 지지들과 만나 노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비보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노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참 사람 냄새 훈훈하게 풍기고, 향기 있는 세월을 사신 분"이라며 "우리 정치에도 강한 인상, 밝은 기상을 남기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목숨을 끊겠다는 결심을 말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다. 참 슬프다"며 끝내 말을 잊지 못했다.

이 밖에도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민 전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등이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다.

전날 자정까지 빈소를 지킨 것으로 전해진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다소 지친 모습으로 빈소를 다시 찾아 조문객을



맞고 있다.

시민들의 발걸도 꾸준히 이어졌다.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각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일부 시민들은 눈시울을 붉히거나 울음을 터뜨리며 빈소에서 나오기도 했다.

노 원내대표가 생전 노동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온 만큼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노동계가 빈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해고 투쟁 끝에 12년 만에 복직한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도 빈소를 찾았다.

한편 노 원내대표의 장례를 주관하고 있는 정의당은 오는 25일 자정까지 시민 장례위원을 모집기로 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장례식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 원내대표가 살아 생전 노동자, 시민들과 언제나 함께 했을 것을 받들어 시민 장례위원을 모시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창은 정의당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최 대변인은 이어 "정의당은 노 원내대표가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남은 4일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27일 오전 9시다. 이후 10시에는 국회장으로 치러지는 영결식이 국회에서 진행된다. 장지는 마서모란공원에 마련된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8명의 후보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 박광온 "광주, 대한민국 일자리 심장으로 만들 것"

최고위원 출마...광주서 기자회견 '광주선언' 발표

더불어민주당 8·25 진당대회에 최고위원에 출마한 해남 출신 박광온 의원이 24일 텃밭 광주에서 '광주선언'을 발표하며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강하게 비판한 뒤 적폐 청산과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됐다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획대로 계엄령이 선포되고 2017년 서울 광화문은 1980년 광주의 금남로처럼 특전사와 탱크, 장갑차가 활보했을 것"이라며 "제2의 광주를 가로막은 건 주권자인 광주시민의 촛불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안사령부는 1988년 5공정문회를 앞두고 시민을 최초 발표자로 만들어 광주민주화 운동을 광주쪽으로 조종했다"고 언급한 뒤 "보안사령부는 기무사령부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후예들은 독재자의 딸과 그를 추종하는 정치세력에 기생하며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 의원은 광주선언을 통해 4가지 방안을 약속했다. 우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유

족에 대한 왜곡·편향·비방 등의 거짓 뉴스와 이를 가공·유포하는 모든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당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5·18 광주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것은 물론 5·18을 왜곡·모욕하는 국회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고, 5·18특별법을 개정해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 사건을 명시하고, 분과위를 뒤진상규명은 물론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조인호 기자

"노회찬, 책임진다는 심정으로 극단적 선택"

박지원 "한계점 도달 했을 것"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전날 숨진 채 발견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관련해 "본인의 삶과 정의당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책임진다는 심정으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오전 YTN라디오 '김효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그분의 삶이, 또 정치적 지향점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댓글 여론조작사건의 중심인물인 드루킹으로부터 정타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관심을 받던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 의원은 "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최근 정의당이 가장 높은 지지

도를 얻으며 달려가고 있는데 노 의원의 그런 사실이 보도되면서 다시 지지도가 2~3% 떨어졌다"며 "여기에 대해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노 원내대표가 당에 남긴 유서에서 돈을 받았지만 정타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노 의원 비보가 크게 이야기되는 것은 고인을 위해서나 현 정치권, 교육을 위해서도 지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고 답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조원진 보좌관, 노회찬 사망에 "잔치국수 먹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의 보좌관이 지난 23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잔치국수 인증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못 드신 분 뉘까지 2인분 먹었습니다"라며 "매년 7월23일을 좌파적결 기념일로 지정하고 잔

치국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는 잔치국수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는 노 원내대표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일을 맞아 잔치국수를 먹는 사진을 함께 게시했던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고인을 조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정씨는 논란이 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